

2017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고전문학반

1. 답사 개요

- 일정: 2017. 5. 18(목)~2017. 5. 20(토)
- 장소: 경상북도 문경, 상주 일대
- 지도교수: 박희병, 이종묵, 조현설, 정병설, 조해숙
- 인솔조교: 조혜진
- 참가학생: 학부생 3명, 대학원생 24명

2. 답사 일정

길을 걷다 보면, 문득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길 위의 건물들, 풍경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길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옛날 길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해도 옛 길에 대한 기억만큼은 여전히 완연하게 남아있다.

이번 답사 장소인 문경과 상주 또한 옛 기억을 가득 담고 있는 장소이다. 특히 ‘문경’이라고 하면 누구나 ‘문경새재’를 떠올릴 정도로 문경새재는 유명한 공간이다. 문경새재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鳥嶺]’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험준한 고개이다. 이 고개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것이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 시험을 치고 나서 기쁘거나 좌절한 마음을 안고 내려오는 사람, 지방으로 부임해서 내려오는 사람, 산수 유람을 떠나는 사람 등.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던 이 길을 선생님들과 여러 학우들과 함께 답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 가득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2박 3일 동안의 답사를 통해 문경새재, 문경석탄박물관, 경천대, 채재정, 매호시비, 우복종가, 속리산 문장대 등 여러 유명한 공간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모두 의미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 기억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곳은 가장 처음에 갔던 문경새재와 가장

마지막에 갔던 문장대이다.

문경새재는 영남 지방의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떠났던 과거길이라고 할 수 있다. 햇볕이 쨍쨍한, 조금 뜨겁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5월의 어느 봄날에 고전문학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여겨졌다. 문경(聞慶)이라는 지명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뭔가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문경새재 초입에 들어서니 옛길 박물관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길에 대한 박물관으로는 이 박물관이 최초라고 했다. ‘길 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문경새재 아리랑’이라는 문구처럼 이 박물관은 아리랑과 관련된 옛 문헌, 축음기, LP판 등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옛 지도, 과거 시험지, 어사화 등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먼 옛날에 과거 시험을 쳤던 선비들이 지금의 수험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그 선비들의 모습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박물관을 나와서는 문경새재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문경새재에는 총 3개의 관문이 있지만, 더운 날씨 탓에 끝까지 걸어갈 수는 없었다. 옛날에는 요즘보다 도로가 더 발달하지 못했던 만큼 더욱 힘들었을 텐데, 서울로 올라갈 때의 긴장감과 행여 낙방하여 돌아올 때의 좌절감 때문에 더더욱 힘들지 않았을까. 영남 선비들의 고충을 헤아려보면서, 더위에 지친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빙수를 먹으면서 휴식을 취했다.

마지막 날에는 속리산 문장대에 올라갔다. 사실 답사에서 1,054m에 달하는 속리산 문장대를 정상까지 등반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등산을 안 한지가 오래 돼서 등반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아빠를 따라 이 산 저 산을 매주말마다 돌아다녔지만, 요즘에는 바로 근처에 있는 관악산도 올라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등산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한기가 몸을 파고드는 어둑어둑한 이른 아침에 우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문장대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문장대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경사도 꽤 가파른데다가 돌산이라 바위가 많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했다. 그러나 아껴 놔던 초콜렛과 물을 서로 양보하면서, 손 잡아 주고 당겨 주며, 저 꽃과 나무의 이름은 뭘까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르다 보니 그 힘든 것을 조금은 잊을 수 있었다. 두세 시간쯤 올라갔을까. 이제 어느덧 문장대의 정상이 보였다. 정상에는 아주 큰 넓은 바위가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갈 수 있었다.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풍경 속에서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리며 땀을 식혀 주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즐기다보니 아뻏게서 왜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조금 알 것도 같았다. 이곳은 세조가 문무 시종과 더불어 시를 읊은 곳이라는 점에서 ‘문장대(文藏臺)’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구름 속에 묻혀 있다 하여 ‘운장대(雲藏臺)’라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이름값을 하는 듯하였다. 올라가기 싫었던 마음은 어느 샌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산바람에 취해서 내려가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이나 서 있었다.

2박 3일은 어떻게 보면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길었다. 1년 365일 중의 단 3일이었지만, 이 답사를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문경과 상주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 옛 장소의 역사와 기록 등을 통해 그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더욱 좋았던 것은, 이 좋은 장소를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글을 통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며 경험하는 공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도 문경새재 길 위를 내리찍는 쨍쨍한 햇빛, 문장대에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옛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산 속의 풍류를 즐기기 위해 걸었던 이 길을 우리는 고전문학 답사를 위해 다녀왔다. 또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다시 이 길을 밟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작성자: 유수빈)

■ 국어학반

1. 답사 개요

- 일시: 2017년 5월 18일(목)~5월 20일(토)
- 장소: 경상남도 창녕 일대
- 주요 활동:
 - 6개 조로 나뉘어 창녕 지역의 방언을 조사함.
 - 창녕군, 대구시의 명승지를 답사함.
- 참가 인원:
 - 교수(7명): 김성규, 정승철, 전영철, 박진호, 황선엽, 김현, 문숙영
 - 조교(1명): 장고은
 - 대학원생(32명): 김동은, 이후인, 최소연, 김지은, 박혜승, 윤예진, 이형주, 최종원, 강규영, 고재필, 배운정, 김다미, 김기, 동효예, 달리바예바, 방원, 배진솔, 손욱, 유가, 유천기, 이운복, 김영규, 백금란, 백인영, 사타 자코모, 엄상혁, 이강혁, 이경옥, 정우현, 최준호, 황현서, 이연량
 - 학부생(9명): 고동현, 김미주, 김채영, 박소연, 송주영, 신찬혁, 오세원, 정민채, 황정수

2. 답사 일정 및 활동 내용

▶ 일정

- (1) 5월 18일
 - 우포늪 관광
- (2) 5월 19일
 - 09:30 ~ 16:00 - 조사지로 이동, 방언 조사
 - 17:00 ~ 17:30 - 만옥정공원 관람 및 산책

- 18:00 ~ 21:00 - 저녁 식사 및 방언 조사 보고
- 21:00 - 뒤풀이 및 휴식

(3) 5월 20일

- 대구 근대골목 투어 및 귀경

▶ 방언 조사

- 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석리, 모산리
- 제보자 정보
 - 김너미(80세) 창녕 태생, 토박이 거주자
 - 이분순(90세) 창녕 태생, 토박이 거주자
 - 이의순(82세) 창녕 태생, 토박이 거주자
 - 하정생(89세) 창녕 태생, 토박이 거주자
- 조별 조사 내용
 - 1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농경, 음식) 조사
 - 2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가옥, 의복) 조사
 - 3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민속, 인체) 조사
 - 4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인체, 친족) 조사
 - 5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동물) 조사
 - 6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식물, 자연) 조사

■ 현대문학반

1. 답사 개요

- 일정: 2017. 5. 18(목)~2017. 5. 20(토)
- 장소: 강원도 일대(원주, 정선, 강릉, 인제)
- 지도교수: 신범순, 방민호, 김종욱, 김유중, 손유경
- 인솔조교: 한경희(현대문학 1호차), 인아영(현대문학 2호차)
- 참가학생: 학부생 38명, 대학원생 20명

2. 답사 일정

이번 2017년도 현대문학반 학술답사는 원주, 정선, 강릉, 인제를 중심으로 강원도 일대를 돌며 진행되었다. 주로 문학관과 박물관을 방문하여 문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는 시간이 많았고, 아우라지와 경포해변, 그리고 백담사가 위치한 내설악의 절경이 그 걸음을 더욱 유쾌하게 했다.

5월 18일 첫째 날의 일정은 박경리 문학공원 방문으로 시작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박경리의 옛집과 뜰, 집필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그 주변은 『토지』의 배경을 테마로 한 ‘평사리마당’, ‘홍이동산’, ‘용두레벌’이라는 세 개의 공원으로 꾸며놓은 공간이다. 한편 공원의 입구에는 ‘박경리 문학의 집’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 2층에서는 『토지』 육필원고를 포함한 박경리의 여러 유품을 관람할 수 있고 3층은 『토지』의 주요대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해놓은 독특한 전시장이다. 우리는 ‘박경리 문학의 집’에서 박경리의 삶과 문학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전시를 관람한 뒤 박경리의 옛집을 둘러보았다. 나에게는 어느 것 하나 뜻 깊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자칫 형식적이기 쉬운 소개 영상에서도 박경리가 직접 읽어주는 『토지』, 불러주는 노래, 담담하게 전해주는 삶에 대한 사유들이 몽클하게 들렸다. 또 박경리가 창작 외에도 옷을 짓거나 조각을 하는 데도 재주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던 터라 2층의 전시실에서 그가 직접 만든 작품들을 구경하는

것도 흥미로웠다. 물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박경리의 옛집에 들어가 본 일이다. 대문호의 작업실은 언제나 그 작품만큼이나 강한 아우라를 뿜어 낸다고 생각하는데, 박경리의 옛집은 그 정갈한 앞마당까지에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했다.

박경리 문학공원을 떠나서는 정선으로 이동해 아리랑 전수관과 아리랑 박물관으로 향했다. 아리랑 전수관에서는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인 김형조 선생님께 직접 정선아리랑의 긴 아리랑과 엮음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조 선생님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인상 깊었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정선아리랑을 부르든 숨겨진 장점을 끄집어내어 칭찬해 주는 따뜻한 방식이었다. 짧은 시간 안에 대단히 음의 변화가 복잡한 정선아리랑을 소화하기는 어려웠지만 함께 앉아 있는 누구 하나 뒤로 빼지 않고 목소리를 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리랑 전수관을 나와서는 건물을 감싸고 있는 아우라지를 구경하며 돌다리와 달다리를 건너보기도 했다. 생각보다 물살이 세고 돌다리 사이의 간격이 넓어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한 번씩 강을 건너 보고 왔다. 한편 아리랑 박물관은 아리랑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오천여 점의 자료가 전시된 박물관이다. 아리랑 악보나 음반뿐만 아니라 아리랑 스카프, 아리랑 담배, 아리랑 색연필 등 말 그대로 아리랑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총집합한 공간이었는데, 박물관 측의 소개처럼 아리랑이 “한민족의 DNA가 깃든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를 보존하고 대중화하고자 한다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했다.

그렇게 첫날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사곡휴양림의 숙소로 이동했다. 이름 그대로 휴양림 속에 지어진 숙소여서 밤에는 별이 많았고 아침에는 바람이 맑았다. 이날 밤에는 다함께 큰 방에 모여 답사 보고회를 진행하고 뒤풀이를 가졌다.

5월 19일 둘째 날 아침, 가장 먼저 사북석탄역사체험관으로 향했다. 사북탄광은 1960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2004년 폐광하기까지 40여 년간 대규모의 민영탄광으로 성장했고, 폐광된 이후에는 체험관으로 탈바꿈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광부인차 탑승체험을 하고 유물전시관으로 가서 광부들이 사용

하던 샤워실부터 보안장비실, 채탄장비실, 도면실, 문서자료실 등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광부인차나 광부복장을 체험해보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였지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온 것은 광부들이 무릅써야 했던 위험과, 그럼에도 피할 수 없었던 죽음들이었다. 십여 년 전까지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남겨두다 보니 부상과 사망의 기록들도 고스란히 적혀있었는데 그때의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부끄럽지만 이번 체험관 방문은 1980년 4월에 있었던 사북탄광 노동항쟁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항쟁의 주동자들이 불과 2년 전인 2015년에야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그러나 김순이 씨 등에게 남은 상처는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고 논의해야 할 문제임을 기억하게 되었다.

사북석탄역사체험관을 나와서는 강릉으로 이동해 허난설헌 생가 및 경포대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허난설헌 생가는 이전에 한 번 와 보았던 곳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무덥기도 해서 그들을 찾아다니기 바빴던 생각이 나지만, 그런 만큼 아주 쨍하고 화창하고 또렷한 이미지들로 남아 있다. 언제 가도 즐거운 바다인 만큼 경포대 해수욕장도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학부생들(과 소수의 대학원생들)은 바나나보트를 타기도 하고 옷통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것저것 뒷일을 재지 않고 한껏 즐기는 모습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발만 적시는 한에서 만족했다.

바다를 떠나 이번에는 인제로 이동했다. 인제에서는 둘째 날의 마지막 일정이자 그날의 숙소이기도 했던 만해문학관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만해문학관은 이번 답사에서 가장 예뻐던 장소로 손꼽을 만한 곳이었다. 문학관 자체도 볼거리가 풍성했지만 사실 그보다도 건물을 둘러싼 산책로들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던 카페가 더 마음에 들었다. 이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다녔던 일이 생각이 난다.

5월 20일, 답사의 마지막 날이 되어 우리는 만해문학관 근처에 있는 한국시집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한국시집박물관은 그 이름에 비해 다소 전시가 빈약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만해문학관에서 도보로 걸어가기에 적당해 아침 산책으로는 좋았지만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 곳이었다.

시집박물관을 나와서는 백담사로 이동했다. 백담사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던 돌탑들이 그려진다. 살면서 보아온 중에 가장 많은 돌탑이 모여 있던 것 같았는데, 사진으로도 여러 장 남겼지만 그 풍경이 상당히 기괴하기도 했다. 백담사를 한 바퀴 둘러본 후에는 저마다 물가 근처 바위에 앉아 손발도 씻고 어린아이들처럼 물수제비도 뜨곤 했다. 답사를 다니는 동안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다소 분리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시간만큼은 같이 사진도 찍고 짧게나마 담소도 나누게 되어 즐거웠다.

답사의 마지막 일정은 박인환 문학관이었다. 박인환 문학관은 그가 활동했던 시대와 공간을 그럴 듯하게 본떠 조성한 테마파크에 가까웠는데, 그래서인지 명동 최고의 멋쟁이였던 박인환만큼이나 위트 있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낙원동 입구에서 오장환이 운영하던 서점 마리서사, 김수영의 모친이 열고 후에 「신시론」 발간의 밑거름이 된 선술집 유명옥, 이 예술가들이 모여 들던 또 하나의 사랑방 은성 등 재현해 놓은 모든 가게들이 흥미롭고 새로웠다. 함께 골목골목을 누비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상세하게 들려주시던 김유중 선생님 덕분에 더 풍성한 경험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박경리 문학관부터 박인환 문학관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몇 십 명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네 개의 도시를 옮겨 다니며 답사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도 아무 사고도 얼굴 붉힐 일도 없이 다녀올 수 있었던 데는 사흘 내내 종횡무진 뛰어다녔던 선배들의 공이 컸다.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이번 답사도 출발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핑계가 떠오르고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역시나 (거의)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다녀오고 나니 이제는 아련하고 따뜻한 기억들만 남아 있다. (작성자: 유서현)